KiRi 리포트 2018.5.8.
글로벌 이슈

아시아 생명보험시장의 현황과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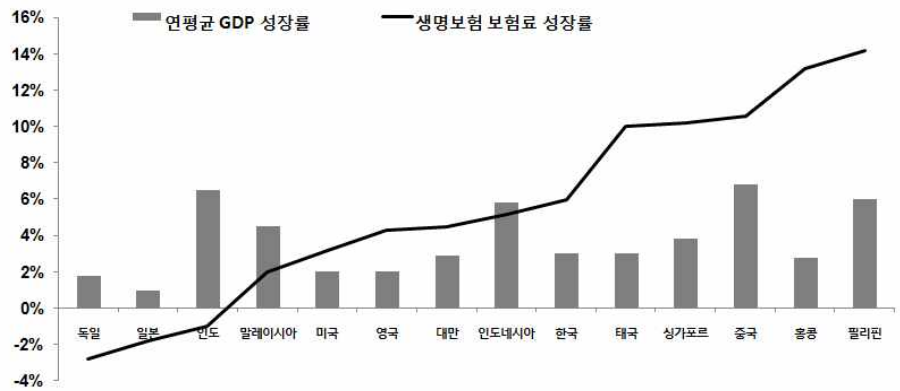
한성원 연구원

중국, 인도 등 아시아 5개국 생명보험시장이 2016년 기준 세계 10대 생명보험시장에 포함되었으며, 최근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생명보험 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음. 홍콩과 싱가포르의 보험회사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과 고령인구를 보험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과 인수기준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중국과 인도의 생명보험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테크놀로지, 소셜미디어 등의 활용이 활발하여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됨. 고령자나 질환자 대상의 건강보험 상품 보급 확대 및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접목이 향후 아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중국, 인도 등 아시아 5개국 생명보험시장이 2016년 기준 세계 10대 생명보험시장에 포함되었으며, 최근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생명보험 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음(〈그림 1〉 참조)

- 2010~2016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GDP 성장률은 3~8%로 미국,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높은 편인데,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률은 5~16%로 경제성장 속도보다 높음

〈그림 1〉 국가별 성장률과 생명보험 보험료 성장률 비교(2010~2016년)



출처: Axco insurance Information Services, The World Bank

■ 홍콩과 싱가포르의 보험회사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과 고령인구를 보험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과 인수기준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1)]

- 홍콩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30개 이상의 새로운 중대질병(Critical Illness, 이하 'CI') 보험이 개발되는 등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심장 발작, 암, 뇌졸중, 관상 동맥 우회 수술 등 4개 중증 질환만을 보장하는 CI보험부터 100개 이상의 질병을 포괄하는 CI보험까지 다양함 보험상품을 개발함
- 싱가포르의 경우 그동안 CI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나 질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심사기준을 낮춤으로써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보험회사도 있음
  - 예를 들면 30세에서 65세 당뇨병 환자에 대한 가입 심사를 간소화함

■ 중국과 인도의 생명보험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테크놀로지, 소셜미디어 등의 활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됨

- 중국과 인도의 생명보험 침투율은 2016년 각각 2.8%와 2.2%로, 이는 미국(3.6%), 일본(5.1%) 등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장래성장성이 높음
- 중국 보험회사들은 소셜 미디어 관련 회사들의 광대한 고객 기반을 통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의 인터넷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인 텐센트(Tencent)는 웨이민(Weimin)보험의 지분을 58% 소유하는 승인을 받았으며, 텐센트가 운영 중인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음[2)]
- 인도의 2015년 건강관리서비스 창업 건수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들 창업 회사들은 인슈어테크(InsurTech) 도입을 활발히 하고 있음

■ 고령자나 질환자 대상의 건강보험 상품 보급 확대 및 IT 기술 접목이 향후 아시아 생명 보험 시장의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KiRi

1) RGA(2018), "The Diverse Markets of Asia: The Growth Engine For Today's Life Insurers"
2) Technasia(2017. 10. 25), "How Baidu, Alibaba, and Tencent plan to dominate Chinese online insurance"